

6월 19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6월 1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 증시 나홀만에 상승..다우 0.69%↑	18일(현지시간) 뉴욕 주식시장에서 다우 지수와 S&P500 지수가 경제 지표 개선에 힘입어 나홀만에 반등. 그러나 나스닥 지수는 스마트폰 `블랙베리` 제조업체 리서치 인 모션(RIM)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등락을 거듭한 끝에 약보합권에 머물렀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58.42포인트(0.69%) 상승한 8,555.60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4포인트(0.02%) 하락한 1,807.72를,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7.66포인트(0.84%) 오른 918.37을 각각 기록했다. 경제지표가 일제히 개선되면서 투자심리를 지지했음. 미국의 실업수당 연속 수급자는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해 고용시장의 가파른 위축세가 둔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음.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경기도 9개월만에 최고 수준으로 개선되었고 미국의 향후 3~6개월 뒤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경기선행지수는 2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음. 전날 금융규제 개혁안 발표 여파로 떨어졌던 금융주가 저가매수세 유입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 반등을 견인했음.
실업수당 연속수급자 `5개월만에 첫 감소`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13일 마감기준)가 전주대비 3,000명(계절조정) 증가한 60만 8,00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이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60만 4,000명을 소폭 웃돈 수준임. 그러나 1주 이상 실업수당청구건수(6일 마감기준)는 14만 8,000명 줄어든 668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한 달만에 최저치. 감소폭은 지난 2001년 11월 이후 최대임. 실업수당 연속 수급자수가 5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미국의 경기후퇴(recession)가 끝나가고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렸음.
필라델피아 제조업 경기 `9개월 최고`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은 6월 제조업 지수가 전월의 -22.6에서 -2.2로 상승했다고 밝혔음.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최고치. 블룸버그 통신과 마켓워치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17, -15도 큰 폭으로 웃돈 수준임. 이 지수는 0을 기준으로 이를 상회하면 경기확장을, 하회하면 경기위축을 의미함. 기업들의 재고가 소진되면서 제조업 경기의 위축세가 둔화된 것으로 풀이됨. 그러나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의 생산감축과 공장폐쇄가 당분간 제조업 경기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됨.

제목	주요 내용
유가 이틀째 소폭 상승	국제 유가는 이틀째 소폭 상승세로 마쳤음. 미국의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원유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 상승의 배경이 되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7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34센트(0.5%) 오른 71.37달러에 마쳤음. 장중에는 71.75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음.
닛케이 "亞수요 회복으로 원자재 생산 부쩍"	보도에 따르면 유화제품의 핵심 원료인 에틸렌의 경우 지난 5월 공장가동률은 91.7%로 전달 보다 3.2%포인트 늘었음. 에틸렌 공장의 가동률이 9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9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처음. 에틸렌 생산량은 전달 보다 2.9% 늘어난 57만7,00톤에 달했고 에틸렌 공장의 작업부하도 지난 3월 74.1%로 사상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두달 연속 반등. 닛케이는 화학제품과 건설자재 원자재의 꾸준한 회복세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며 아시아의 경기회복이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中 수요 혜택받는 美·유럽기업에 투자해야"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증시 급락을 예측했던 버튼 맬킬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의 펀드운용사 알파셰어스는 `암브랜즈`,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LVMH) 그룹`, `라스베이거스 샌즈` 등에 투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알파셰어스의 조나단 매스 펀드매니저는 "중국 소비자에게 베풀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들은 삶을 질 개선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소비 활황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량 줄고 임금은 높고..기업 비효율 높아졌다	19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7,2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지수는 112.6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7% 낮아졌음. 지난해 4분기 115.5% 하락에 이어 2분기 연속 내림세. 이는 지난 2007년 1분기의 노동생산성인 112.9보다 낮은 수준. 한편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시간당 명목임금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눈 단위노동비용은 1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4.4% 상승한 105.3을 기록,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음.
불황에 덩치키우는 건설사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000720)은 지난 17일 내부심사를 벌여 워크아웃 건설사인 삼호가 추진해온 서울 광진구 광장동 옛 화이자 부지 시공권을 인수키로 했음. 이 사업은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이 현대건설 측에 시공권 인수를 타진해 석 달여 만에 성사된 것. 현대건설은 이 사업을 위해 설립한 한원광장프로젝트 투자금융(PFV)에 대한 지분과 금융기관 PF(2500억원)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공권을 인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